전북체육 발전 위해 '총력'

최형원 사무처장, 선수들 경기력 향상 위해 매진

"전북 선수단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에서 만난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내년 전국체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전북 선수단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일원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46개와 은메달 44개, 동메달 77개를 획득해 종합 11위(종합득점 3만2,141점)을 기록했다.

선수들이 대회 막판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일부 종목의 부진으로 당초 목표였던 종합 10위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형원 사무처장은 선수들이 전국체전을 대비해 하계 훈련을 소화하는 기간에 하루도 쉬지않고 각 종목 훈련장을 돌며 격려했다.

또한 지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종목별로 맞춤형 지원을 했고, 선수들의 부상방지 및 컨디션 조절을 위해 사전 적응훈련 등도 병행했다.

최형원 사무처장은 "비록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고 싶다"며 "내년 경북에서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 처장은 "현장 행정을 통해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운동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경기력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우수선수 확보 및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북도와 전북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전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며 "다시한번 전북선수단에 보내준 관심과 성원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국장애인체전 성료… 한국신기록 2개 수립

임준범 선수 대회 4관왕 쾌거

서울시 일원에서 5일간의 열띤 경쟁을 펼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성황리 마무리 됐다.

전북도 선수단은 개최지 가산을 제외한 역대 최고 성적을 목표로 대회에 출전해 금 31개, 은 48개, 동 58개 등 종합득점 89,782점을 획득해 17개 시·도중 종합 1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대회에서는 대회 4관왕과 한국신기록 2개를 수립한 육상의 임준범 선수(T13/800, 1,500, 5,000, 10km)를 비롯해 우리나라 여자선수 최초 패럴림픽대회에 출전했던 사이클 이도연 선수와, 육상 윤한진(F33/창, 원반, 포환), 사이클 김용기(H3/개인도로, 개인도로독주, 팀릴레이) 선수가 각각 3관왕에 올랐다.

이 밖에 한국신기록 2개를 수립한 육상의 김정호(F55/창, 포환)와 박우철(F56/포환, 창), 문지경(F33/원반, 창) 수영의 최은지 선수(S6/접영, 배영)가 2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대회에서는 육상트랙(임준범), 육상필드(김정호, 윤한진), 사이클(박진하, 권상현) 종목에서 총7개의 한국신기록과 육상필드(선정미, 문지경)에서 대회신기록 2개를 수립하면서 전년대비(KR 4, GR 1) 풍성한 기록잔치가 이뤄졌다.

또 2020 도쿄 패럴림픽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육상 전민재, 사이클 이도연, 탁구 이근우, 백영복)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또한 청각축구팀의 전국체전 출전 사상 최초 메달획득(동메달)과 여자 게이트볼 3위, 뇌성축구팀 5위, 지적 농구팀 5위, 남자 게이트볼 5위, 여자 좌식배구팀 8위 등 구기종목의 선전과, 지속적인 꿈나무 발굴.육성 사업을 통한 젊은 선수(탁구 황인춘, 펜싱 류은환, 장선아, 육상트랙 이현지, 사이클 권상현, 박진하, 조은경 등)들의 성장도 기대감을 갖게 했다.

무엇보다도 중장기 종목별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하계종목 동계훈련지원과 장비.용품지원 확대, 전지 훈련지원 등 지도자와 선수가 훈련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이클, 펜싱, 양궁, 볼링, 역도, 육상 등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

서울시 일원에서 5일간의 열띤 경쟁을 펼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성황리 마무리 됐다.

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나, 현재 성적의 유지를 위해서 가야할 길은 험난하다"며 "이번 대회에서 좋은 기량을 선보인 젊은 꿈나무 선수들에 대해 벌써 타시·도 영입설이 돌아 선수 유출 방지를 위한 팁 및 선수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절실하며, 훈련시설을 포함한 훈련여건 개선, 전문지도자 배치 확대, 훈련장비·용품지원, 신인선수 발굴·육성, 우수선수 관리 뿐만 아니라 장애인선수의 지속적 체육활동 및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직장 운동부 설립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김홍건 교수, 한국기계가공학회 학술상 수상

탄소 소재 신기술 개발 · 탄소 분야 고급인력 양성 공로 인정

전주대학교 김홍건 교수(기계자동차공학과)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진행된 '2019년 한국기계가공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가계가공학회 학술상은 SCI 논문 게재 실적과 기계가공 및 생산공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김홍건 교수는 전주대 탄소연구소장으로 재임하면서 탄소 소재 신기술 개발과 고급인력 양성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탄소 복합재료 응용 및 실용화를 위해 4가지 중점 연구 분야로 ▲ 탄소 방전 Brush 와이어 응용기술 성능구현 ▲ 탄소 전자기와이어 응용기술 성능구현 ▲ 탄소 전열와이어 및 센서 응용기술 성능구현 ▲ 에너지 저장용 탄소물질 응용기술 성능구현을 주제로 매년 SCI급 국제학술지에 20편씩 게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협력하여 탄소 섬유를 이용한 저 오존 공기 청정 기술을 연구하며 탄소 산업 발전과 그 실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김 교수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해 왔는데, 전주대 탄소융합 특성화 융합대학원에 5개 학위 과정을 설치해 공학 석사 180여 명, 공학박사 4명을 배출했다.

김홍건 교수는 "연구소 구성원 모두가 전라북도의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인 탄소 산업의 발전과 전문 인력양성에 이바지하는 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탄소산업 및 탄소 밸리 육성사업과 연계해 탄소 소재 신기술 개발하고 탄소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데 소속 연구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홍건 교수는 매사추세츠대(University of Massachusetts) 기계공학과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펜실베니아 주립대(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Post-Doc)를 지냈다. 이후 1994년부터 전주대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전주대 탄소연구소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이사, 한국생산제조 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자동차공학회 호남지회 편집이사 및 부지회장,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이사 등을 지내며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中 왕샤오밍 교수 초청강연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은 지난 19일 한지산업관에서 왕샤오밍(王曉明: 상하이대학(上海大學) 문화연구학과) 교수를 초청해 '소인배'의 시대 : 오늘날 중국 대륙의 문화상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왕샤오밍 교수는 중국에서 최초로 '문화연구학과'를 상하이대학에 설립한 중국문화연구학자로, 당대문화연구소(當代文化研究所) 소장을 겸임하며, 중국 문화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왕샤오밍 교수는 중국문화연구를 통해 중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현실에 개입해 중국사회를 바꾸어나가는 실천적인 학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왕샤오밍 교수는 최근 30년 동안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격히 변화한 현대 중국의 문화상황을 소개하며, 현재 중국은 '정치 안정의 유지'를 제일 목표로 하는 국가 시스템과 '중국 특색'의 시장경제 시스템, 그리고 '도시화된 홈 라이프'를 추구하는 생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되어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등의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국외 전문가를 초청해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 상황을 빗대어 우리나라의 근현대 유교문화도 재성찰, 재사유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송제호 교수 전북산학연협의회장 취임

송제호 전북대학교 IT응용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최근 전북산학연협의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송 교수는 "산학협력 체계 구축과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과제 발굴 등에 노력함으로써, 산학협력 교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산학연협의회에는 현재 전북도내 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김영우 방송PD 초청 교육아카데미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0월 전북교육아카데미 '심심(深深)한 초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아카데미는 오는 31일 오후 7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김영우 PD를 강사로 초청해 '먹방으로 바라본 가족구조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 더 정확히는 내가 먹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방송을 말한다.

김 PD는 대한민국이 먹방에 열광하는 이유를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직업, 내집마련, 꿈, 인간관계마저 포기한 1인 가구의 외로움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전통적 가족 개념이 흔들리고 경쟁교육을 통해 성장한 현대인의 고독과 불안이 낳은 먹방 전성시대를 통해 우리의 현실과 가족구조의 미래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김영우 PD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SBS라디오센터 편성기획팀장을 맡고 있다.

'민초들의 이야기'를 다룬 팟캐스트 '떡국열차'를 통해 큰 인기를 얻었으며, '한국사특급 떡국열차'의 공동 저자로 참여한 바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 및 도민은 전북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arents.jbe.go.kr-학부모교육-교육신청) 또는 모바일(http://parents.jbe.go.kr-교육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신청을 못할 경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